

광주시, RE100추진본부 출범... 에너지전환 본격화

광주시가 '광주RE100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RE100 도시 광주'를 향한 광주형 에너지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고,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광주RE100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원, 고상연 한국기후에너지진흥원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 김성진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장 등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RE100 추진본부'는 광주시,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 박사급 연구위원 2명을 증원하고, 석사급 전문연구원 1명을 채용해 'RE100 도시 광주' 실현의 컨트롤타워 및 실행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광주시와 함께 ▲정부 RE100 산단 조성 추진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기업 지원 ▲분산특구 지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주도 도심형 태양광 확산 등을 맡는다.

내륙도시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한계가 있는 광주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RE100산단 조성의 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추진본부 제막식과 함께

시·기후에너지진흥원·도시공사 등 참여...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 지역기업 10곳 'RE100 전환' 선언... 민관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RE100 예비기업 선언식'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기업 10곳이 RE100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들 기업은 태양광 2.5MW와 풍력 105kW를 활용해 2026년 말까지 1곳(에어스퀘어)은 RE100을, 나머지 9곳은 RE30(재생에너지 사용량 평균이 산업용의 30% 달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개최된 '광주RE100 세미나'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장승찬 광주전남

본부장의 '광주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광주연구원 박동원 첨단산업도시연구실장의 '새 정부 RE100 정책과 광주의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RE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첨단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등 RE10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보급률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1위 도시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형 RE100 정책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내 RE100 실현, 기업지원 확대, 서남권과의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을, 전남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AI, 모빌리티, RE100은 광주·전남의 미래먹거리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것이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아시아 4개국 쌀요리 만들어보세요

동아시아 쌀문화 페스타 일환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본 모나카·베트남 반미·중국 전병·태국 바나나 로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12월까지 진행되는 '동아시아 쌀문화 페스타' 일환으로, 전통 쌀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아시아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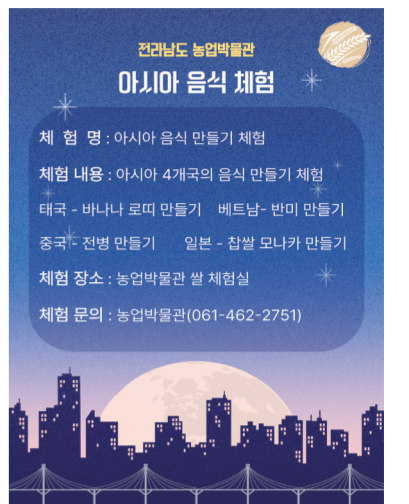
체험은 쌀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도록 기획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의 쌀 음식이 가진 다양성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쌀문화관 2층 쌀 체험실에서 진행되며, 일본, 베트남, 중국, 태국, 4개국의 대표적인 쌀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일본 음식 체험에선 모나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모나카는 일본의 전통 디저트로, 바삭한 찹쌀 모나카 안에 다양한 필링(팥, 견과류 등)을 채워 현대적 레시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의 반미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은 쌀가루로 만든 바게트에 각종 재료와 소스를 조합해 나만의 반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대표적 쌀 기반 음식으로, 신선한 재료와 이국적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중국 음식 체험에선 쌀 반죽을 얇게 부쳐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먹는 전통 음식인 전병을 직접 만든다. 재료 구성과 조리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흥미롭고, 쌀의 또 다른 활용법을 경험할 수 있다. /신종팔 기자



태국의 바나나 로피 만들기는 크레페와 같은 반죽에 바나나를 올리고, 연유나 초콜릿 등 여러 토핑을 곁들여 완성하는 달콤한 디저트 체험이다. 태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민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이번 다문화 음식 체험은 쌀이라는 공통된 재료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기며 배우는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체험 정보와 신청 방법은 농업박물관(061-462-2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팔 기자

상반기 호남권 경기 부진... 제조업 제자리, 물가는 2.1%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상반기 호남권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경기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소폭 또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제조업 중 조선은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반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수출 호조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석유화학·석유정제, 철강은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의 관세정책, 일부 업체의 경기부수 등으로 생산이 부진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소폭 둔화 조사 서비스·건설업 감소... 비임금근로자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항공운송의 경우 본격적인 지역축제 개최 등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한 영향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소비심리 회복, 여행 수요가 늘면서 소폭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주택 매매,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보험 수준을 보였다.

이들 반영하듯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는 월평균 93.9로 전년 하반기(94.6)에 이어 100 이하로 나타났다.

상반기 소비 중 내구재는 자동차·가전·가구 등이 줄어들면서 감소했고 준내구재는 의복·레저용품 중심으로 줄었다. 반면 비내구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용 연료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유지보수 위주의 투

자 기준을 이어갔다. 자동차는 신형 모델 출시에 대비해 설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전년 하반기 대비 투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은 일부 업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전년 하반기 종료되고 상반기 중에는 노후화 설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유지보수 위주의 설비투자를 진행해 전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만5000명 감소해 전년 하반기(-2만5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농림어업은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4만4000명 감소해 전년 하반기(월평균 -2만2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자영업 폐업 증가, 플랫폼 노동자 증가, 특수고용 형태 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채일 기자

맛·솜씨 겨룰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 참가하세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8월 10일까지 2인이상 팀단위 모집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남도 미식의 품격과 매력을 전국에 알릴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 프로그램은 전남 22개 시군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남도 미식 메뉴를 18개 개별 부스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의 대표 맛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판매함으로써 남도 미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전국은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체험형 미식 콘텐츠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셰프 또는 지역 맛집 운영자 중 1일 500인분 이상의 메뉴를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경험자나 능력 보유자 등이다.

2인 이상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건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위생과 운영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미식로드 운영과 조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조리·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팀을 선발하며, 선발팀에는 메뉴 컨설팅, 위생 교육, 프로모팅과 메뉴 이미지 촬영 등 다양한 운영 지원이 제공된다. 박람회 종료 후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 콘텐츠로 지속 홍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박람회 공식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유의 사항은 해당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9월 1일 누리집과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유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